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6월 모의평가

총평 · 해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총평

- 2025. 6. 4. 상상국어평가연구소

01 출제 경향 및 난이도

“독서 연계율 상승, 문학의 추론 요소 약화, 선지 구성의 단순화, 실수와의 싸움”

올해 6월 모의 평가는 평이했던 25학년도 수능보다도 쉽게 출제되었다. 독서의 경우, 기술을 제외하고 연계율이 매우 높았다. 또한 선지의 길이도 줄고 단편적인 정보 확인에 그친 문항들이 다수 포진되었다. 8번, 12번, 17번 <보기> 문항들이 까다로운 편이었으나 복잡한 추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정보를 비튼 수준으로 과하게 어렵지 않았다. 문학도 대체로 작품과 문항 모두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21번과 34번 <보기> 문항이 오독을 유도한 함정으로 인해 쉽지 않았을 뿐, 지문과 선지 정보의 기계적 대비에 그친 문항이 많았다. 비연계 작품들의 난도가 높지 않았던 것도 특징적이다. 한편 화작은 쉽게 출제되었고, 언매는 일부 문항에서 난도를 확보하여 선택 과목 간 점수 차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등급 컷은 화작 96~97점, 언매 94~95점으로, 25학년도 수능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02 영역별 분석

■ 독서

독서론은 기존의 평가원 스타일을 유지했다. 비교적 낮은 용어인 동형이의어의 개념과 특징을 제시했지만, 예시를 많이 활용해 내용 파악은 어렵지 않았다.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형식을 차용해 눈길을 끈 3번 <보기> 문항은 예문의 분석을 통해 지문의 중심 개념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했다. 사회는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어 변화를 주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수특, p.131)을 연계하되, (가)는 법적 규제에 대한 3가지 모델을 제시했고, (나)는 법 모델의 요소가 혼합된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소개했다. (나)의 정보량이 많았지만, 연계율이 높아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25학년도 수능과 마찬가지로 4번 문항이 내용 전개 방식 유형으로 출제되어 내용 관련 문항이 4개로 조정되었다. 6번 문항은 <보기> 없이, (가)에서 제시된 이론을 (나)의 상황에 적용하는 유형이어서 독특했다. 8번 문항은 정보량이 많은 편이며, 정답 선지에 함정을 파 놓았다는 점에서 오답률이 다소 높게 나올 것이다. 반면 5번, 7번 문항이 각각 (가)와 (나) 한 지문의 내용만을 다루었다는 점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었을 것이다. 기술은 ‘연료 전지’(수특, p.249)를 연계했다. 수소의 저장과 추출을 위한 방법이 핵심 내용이라 직접 연계된 분량은 많지 않지만, 복잡한 과정은 생략하고 각 방법의 장단점을 주로 제시하여 어렵지 않았다. 10번 문항의 경우 선지 표현을 지문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 11번 문항도 정답 선지를 제외하고 단편적인 특징을 물어 소거법으로 쉽게 풀린다. 12번 문항은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여 정오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문은 ‘플로리다의 정보 철학’(수특, p.73)을 연계했으며, 연계율도 EBS 지문을 요약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높았다. 핵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점수와 시간까지 모두 잡았을 것이다. 16번 문항은 판단 자료가 단순하며 특정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난도가 높지 않았다. 다만 17번 <보기> 문항과 마찬가지로 선지 일부에 틀린 근거를 삽입하여 선지를 꼼꼼히 분석하지 않을 경우 실수를 유발하도록 했다.

■ 문학

문학은 작년 수능보다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EBS 연계 작품으로는 「동유가」, 「김진옥 전」, 「역사」, 비연계 작품으로는 「표구된 휴지」, 「해촌 일지」, 「살구꽃과 한때」가 출제되어 50%의 연계율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유가」의 출제 부분이 EBS 연계 교재에 절반 이상 수록되었고, 「김진옥전」은 수특과 다른 판본을 활용했으나 이번 6모에 제시된 내용이 수특 부분과 거의 일치했다. 갈래 복합은 25학년도 6모와 마찬가지로 (가), (나) 두 지문의 5문항으로 설계되었고, 현대시가 4문항짜리로 출제되었다. 전체적으로 작품의 내용을 꼼꼼히 읽었는지를 확인하는 세부 내용 파악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고, 현대 소설의 경우 <보기> 문항을 서사론 관련 내용으로 구성하여 난도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인물의 정서와 관련된 어휘를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과 서사 맥락에 관해 묻는 27번, 감상문의 형식으로 지문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묻는 29번 문항이 다소 특이했다. 작품에 드러난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의 통합 방식의 이해에 관련된 34번 문항도 까다로운 편이었다.

■ 화법과 작문

화법(35~37)은 사이테스라는 낯선 개념을 제시하였으나, 평이한 수준의 내용과 문항으로 출제되었다. 36번에서는 기존 자료 활용 문항에 비해 제시되는 자료가 더욱 복잡해졌으며, 동일 자료를 다른 위치에서 사용하는 등의 변주를 주었다. 또한 선지의 표현을 정확히 읽어 내야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 실수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난해 9모부터 학생들의 대화로 제시되었던 37번 문항의 보기가 그 이전과 같이 각 학생의 반응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학생들의 부담을 줄였으나, 지문의 사소한 부분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야 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였을 것이다. **화법+작문**(38~42)에서는 2018년 9월 모의고사 이후 처음으로 면접 유형의 글이 등장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제시된 문항은 기존 기출의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두 지문과 메모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반영 양상의 적절성을 확인하도록 한 40번 문항을 핵심 문항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전 기출에 비해 (가)와 (나)의 내용적 연결성이 낮아, 40번에서 선지를 판단하기 위한 (가) 지문의 활용이 적어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낮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작문**(43~45)에서는 교지에 기고하는 설명문으로, 익숙한 설정과 유형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4번 문항은 선지를 판별할 때 확인해야 하는 조건을 세세하게 제시하여 시간 소요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45번 문항에서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그래프를 결합한 모양의 자료를 구성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자료에 담아 활용하고 있어, 정보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선지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 언어와 매체

언어는 지문형(35~36)에서 ‘용언의 활용형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표기 반영 여부’를 다루었는데, 꽤 빈출 내용으로 24학년도 수능 37번과 22학년도 6모 [35~36]에 이미 출제된 적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수험생이라면 지문을 열심히 읽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지문에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문만 꼼꼼히 읽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냈다면 시간은 약간 소요되더라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독형 중 37번은 [3점] 문항답게 피동사, 서술절, 본+보조 용언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주어진 정보 없이 완전히 문법적 배경지식에 의존해야 하는 문항으로, 학습이 충분히 이뤄진 학생이라도 시간이 꽤 소요되었을 것이며, 오답률도 높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24학년도 9모 38번처럼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 문항에서 한꺼번에 묻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38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의 차이를 묻는 문항으로 익숙한 내용이라 쉽게 풀었을 것이다. 39번은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 이형태에 관한 내용으로 평이해 보이지만 일부 낯선 내용을 다루었고 표와 선지를 활용하여 난도를 확보했다. **매체**는 전반적으로 난도는 낮았으나,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공동 문서’ 형식이 지문에 활용되어 이를 이해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기존의 소통 양상 관련 문항들은 학생의 발언에 기호를 붙이거나(24학년도 수능, 25학년도 9모), 게시판 형식으로 대화를 분리해 제시하는 방식(24학년도 6모)을 통해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던 반면, 이번 41번은 별도의 표식 없이 지문 전체를 읽으며 소통 양상이 드러나는 부분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기존의 언어 통합 문항이 하나의 지문 안에서 해결되었던 것과 달리, 42번은 (가)와 (나)에 걸쳐 풀이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03 상상국어 모의고사와 6모

최근 평가원에서는 중~중상 난도 수준의 문항들을 중심으로, 정보의 요약, 비교 등을 통해 시간을 소요하게끔 시험을 설계하여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번 6모는 킬러 문항을 확실히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난도 하 수준의 문항들이 다수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풀이 시간의 절약으로 이어져 등급컷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시험에서는 중상 수준의 문항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풀이 과정에서의 실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독서 중심으로 EBS 연계율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평소 EBS 교재에 수록된 모든 지문을 섭렵하는 일은 필수가 되었다. 상상국어 모의고사로 연습한다면 평이한 시험도 더 쉬워진다. 수험생 여러분이 EBS 연계 지문을 완전히 정복하고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해설

공통 과목 정답

1	④	2	⑤	3	③	4	②	5	③
6	④	7	④	8	⑤	9	①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③	15	⑤
16	①	17	②	18	⑤	19	⑤	20	②
21	②	22	③	23	③	24	④	25	②
26	③	27	①	28	①	29	③	30	②
31	③	32	⑤	33	⑤	34	④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정답

								35	④
36	④	37	①	38	①	39	③	40	③
41	②	42	①	43	⑤	44	④	45	②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정답

								35	④
36	②	37	⑤	38	①	39	③	40	⑤
41	①	42	④	43	①	44	④	45	②

공통 과목 해설

[1 ~ 3] (독서) 「동형이의어의 개념과 특징」

1. 세부 내용 파악(정답: ④)

2문단에 따르면 일반적인 언어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동형이의어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 보면 그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1문단에 따르면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독자는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고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2. 중심 내용 파악(정답: ⑤)

1문단에 따르면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2문단에 따르면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독자는 ‘그 동형이의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따라서 독자는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표기가 같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낸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독자는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리고, 그것이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다른 의미를 떠올린다. 따라서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독자는 동형이의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를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다른 단어를 떠올린다. 따라서 동형이의어의 의미 중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확인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따라서 제약성이 강한 문맥에서는 문장이 다양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정답: ③)

㉔는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에 대한 제약성이 약해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제약성이 약한 것은 ‘배’의 의미가 선박인

경우와 과일인 경우 모두 문맥상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즉, 어느 경우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다고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에서 말하는 ‘배’가 쓰인 문장, 즉, 첫 번째 문장의 경우 제약성이 약해 ‘배’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다.
- ②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의 경우, 제약성이 약한 첫 번째 문장을 읽은 뒤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때 학생은 ‘배’가 선박을 의미하는 경우와 과일을 의미하는 경우 두 가지를 고려한 채 두 번째 문장을 읽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은 두 번째 문장까지는 의미확정이 유보되었다가,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며 문맥이 형성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의 경우, 해당 문장에서 사용된 표현을 통해 ‘다리’가 신체 부위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그 의미를 확정짓고 있다.

[4 ~ 9] (사회) 「법 모델과 임대차 보호법」

(연계: 수능특강 독서 131쪽)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정답: ②)

(가)에서는 법 모델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나)에서는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계약만으로 임차인 보호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차 보호법의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의의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에서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등장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에서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절차주의적 법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방안도 제안하고 있지 않다.

5. 세부 내용 파악(정답: ③)

(가)의 [A]에 따르면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 인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이는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더욱 개입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더욱 망가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하면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오답풀이]

- ① (가)의 [A]에 따르면 ㉠은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으로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의 [A]에 따르면 ㉠ 발생 시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와 같은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 어렵다. 따라서 ㉠의 상황에서는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 ④ (가)의 [A]에 따르면 ㉠ 발생 시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공동체가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법 규범이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 ⑤ (가)의 [A]에 따르면 ㉠ 발생 시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따라서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든

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중심 내용 파악(정답: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라고 본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 중 하나로 임대인의 갱신 요구권이 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인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 임대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 가깝고,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대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라고 보므로,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임차물이 생

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법에 마련된 제도가 계약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③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라고 본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진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하여,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이다.

7. 생략된 내용 추론(정답: ④)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하므로, 임차인은 더 이상 임차물을 자신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한다.

[오답풀이]

①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진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다는 점과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결정이 계약에 따른다는 점은 관련이 없다.

②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점과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결정이 계약에 따른다는 점은 관련이 없다.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이 아닌 계약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라도,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정답: ⑤)

(나)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조정 절차가 열리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한다. <보기>에서 임차인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임차인인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가 열리지 않았으므로,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일

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갑과 을은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다. 따라서 을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갑이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하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는다.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된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제도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되고 임대차 기간이 정해진 경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동등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임차인 보호 조항을 둔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갑과 을은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을 정했으므로, 을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다’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에 따르면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B 상가에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근대 국가는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것이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다.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만약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갑과 을은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이에 B 상가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은 자유롭게 B 상가에 대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고, 이는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다.

9. 단어의 의미 파악(정답: ㉠)

㉠의 ‘삼다’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라는 뜻을 지니므로, ‘그는 신문 기사의 주장을 근거로 삼았다.’의 ‘삼다’와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단어이다.

[오답풀이]

② ㉡의 ‘부딪히다’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직면하다.’의 의미로,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친구와 부딪혔다.’의 ‘부딪히다’는 ‘무엇과 무엇이 힘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 또는 닿거나 대게 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의 ‘어렵다’는 ‘하기가 까다로워 힘에 겹다.’의 의미로,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들은 너무 어렵다.’의 ‘어렵다’는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의 ‘남다’는 ‘어떤 상황의 결과로 생긴 사물이나 상태 따위가 다른 사람이나 장소에 있다.’의 의미로,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익이 많이 남았다.’의 ‘남다’는 ‘들인 밀천이나 제 값어치보다 얻는 것이 많다. 또는 이익을 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의 ‘내놓다’는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다.’의

의미로, ‘언니가 화분들을 모두 베란다에 내놓았다.’의 ‘내놓다’는 ‘물건을 밖으로 옮기거나 꺼내 놓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0 ~ 13] (과학) 「수소 운반체를 활용한 수소 저장 및 운송 방식」

(연계: 수능특강 독서 249쪽)

10. 세부 내용 파악(정답: ㉡)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수소 연료 전지에서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전자는 도선을 통해 환원 극으로 이동’한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 생산이 가능하다.’

② 2문단에 따르면 ‘MCH는 취급 안정성 및 독성이 휘발유와 유사’하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암모니아에서의 수소 추출 방식으로는 전기분해, 광분해’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방식에서는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인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수소 연료 전지의 산화극에서는 수소가, 환원 극에서는 산소가 공급된다.

11. 중심 내용 파악(정답: ㉣)

2문단에 따르면 ㉠(메틸사이클로헥세인(MCH))의 경우, ‘톨루엔 분자 하나에 세 개의 수소 분자가 결합’하여 생성된다. 이때 각 수소 분자에는 ‘탄소와 수소 원자 간의 결합’이 두 개씩 만들어진다. 이에 비해 ㉡(암모니아)의 경우 분자당 수소 분자가 아닌, 수소 원자가 세 개씩 포함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은 액체이기 때문에, ‘증발 기체 발생으로 인한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은 ‘높은 독성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은 ‘기존 비료 산업에서 사용하는 합성법으로 생산할 수 있고, 대규모의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여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은 석유의 저장과 운송을 위한 기존 인프라를, ㉡은 기존 비료 산업과 관련한 기존 인프라를 사용하여, 저장 및 운송이 가능하다.

12.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정답: ㉔)

㉑(열분해 방식)과 ㉒(이 전기분해 방식) 모두 암모니아 분해 방식을 통해 수소 기체를 생성한다. 그런데 3문단에 따르면 ㉑의 경우 전환율이 0.9로, 10몰의 암모니아를 공급하면 9몰의 암모니아가 반응한다. 이에 비해 <보기>에 따르면 ㉒는 10몰 중 6몰만이 반응한다. 따라서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㉒에서 더 적은 양의 암모니아만이 반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생성되는 수소 기체의 양 또한 더 적을 것이다.

[오답풀이]

㉑ 3문단에 따르면 전기분해 방식 또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암모니아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난다. <보기>에 따르면 ㉒의 경우 전기분해 방식을 사용하며, 10몰 중 6몰의 암모니아가 반응하였다. 따라서 ㉒에서도 질소 기체가 생성될 것이다.

㉒ 3문단에 따르면 부반응은 ‘암모니아 분해 반응의 의도된 생성물 외의 다른 물질이 최종 물질로 생기는 반응’을 말한다. ㉑의 경우 전환율이 0.9로, 대부분의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생성하게 되며, 부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㉑에서 생성된 수소 기체는 부반응을 통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㉓ 3문단에 따르면 전환율은 ‘반응한 전체 암모니아의 몰 수를 공급한 암모니아의 몰 수로 나눈 값’이다. ㉑의 전환율은 0.9인데, <보기>에 따르면 ㉒의 경우 10몰 중 6몰이 반응하였으므로 전환율이 0.6에 불과하다.

㉔ 3문단과 <보기>에 따르면 ㉑와 ㉒ 모두 암모니아 분해 반응을 통해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3문단에 따르면 암모니아 분해 반응이 일어날 때 ‘암모니아, 질소 기체, 수소 기체의 몰 수의 비는 2 : 1 : 3’이다. 즉, ㉑와 ㉒ 모두 반응한 암모니아의 몰 수보다 더 많은 몰 수의 수소 기체가 생성된다.

13. 단어의 의미 파악(정답: ㉓)

㉑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재료나 도구, 수단이 이용되다.’의 의미이다. ‘활용(活用)하다’는 ‘충분히 잘 이용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오답풀이]

㉑ ㉑는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를 본디보다 작게 하다.’의 의미이다. ‘단축(短縮)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를 짧게 줄이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㉒ ㉒는 ‘새로운 상태를 이루어 내다.’의 의미이다. ‘제작(製作)하다’는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든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㉓ ㉓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이다. ‘습득(習得)하다’는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㉔ ㉔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의미이다. ‘성행(盛行)하다’는 ‘매우 성하게 유행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14 ~ 17] (인문) 「플로리디의 정보 철학」

(연계: 수능특강 독서 73쪽)

14. 세부 내용 파악(정답: ㉓)

1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사물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은 모두 정보로 환원된다.

[오답풀이]

㉑ 2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있음’을 ‘상호 연결의 주체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있음’의 개념은 경험주의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정의되는 ‘있음’과 다른 뜻을 지니게 된다.

㉒ 1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인간을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본다. 또한 플로리디는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산 예시를 제시하며, 나의 음성 정보가 친구의 행위라는 정보를 발생시킨다고 본다. 이 예시에서 빵을 산 친구의 행위는 인간과 영향을 주고받는 정보에 포함되는데, 이는 음성 정보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㉑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고 본다. 즉 추상화 층위에서 생략되지 않고 인식되는 정보만이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인 것이다.

㉓ 1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를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라고 본다. 또한 플로리디는 이러한 정보적 존재들이 정보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해서 친구가 그 빵을' 산 예시를 제시한다. 이 예시에서 나라는 정보적 존재는, 친구와 빵이라는 정보적 존재들 각각과 상호 연결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보적 존재는 다른 정보적 존재들과 상호 연결 관계를 둘 이상 맺을 수 있다.

15. 중심 내용 파악(정답: ㉕)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그리고 이는 '주어진 세계를 주체가 택한 경로에 따라 해석하여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포그가 지닌 속성이라는 정보는, 주체가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떤 관점을 통해서 인식하는가에 의존한다.

[오답풀이]

- ①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인포그가 속한 공간인 인포스피어는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이 중첩되어 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를 포함한다.
- ② 1문단에 따르면, 인포그는 '다른 정보를 변화시키는 행위자 즉 주체인 동시에 다른 정보에 의해 변화되는 대상'이다.
- ③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추상화 층위는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즉 '추상화 층위에서는 그 층위를 선택한 주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속성만 정보로 인식되고 나머지 정보는 생략된다.' 이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주체의 주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상화 층위에 의한 주체와 대상 사이의 매개는, 인포그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인식이 객관적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인포그들이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인 인포스피어는 '주체가 만들어 낸 허구'가 아니다.

16. 다른 견해와의 비교(정답: ㉑)

2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들은,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을'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즉 플로리디는 인간과 인공물들의 권리가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ㄱ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오답풀이]

- ② 1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내가 친구에게 빵이 맛있다고' 말하는 음성 정보는 '그 빵이 지닌 속성

이라는 정보에 의해 촉발된' 대상이라고 본다. 즉 플로리디는 정보가 인간이 아니라 인공물에 의해서도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ㄴ은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한다.

- ③ 1문단에 따르면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ㄷ은 인간중심주의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④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뉴턴은 주체가 속한 공간을 '주체나 대상과 관계없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반면 플로리디는 주체가 속한 공간을 '대상이 추상화 층위를 통해서 인식되는' 공간으로 간주했다. 이때 추상화 층위란 '주체의 목적이나 관심을 반영함으로써 주체와 대상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이다.' 즉 플로리디는 주체가 속한 공간은 그 주체가 어떤 인식적 매개 경로를 택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따라서 ㄹ은 뉴턴의 입장과 상충하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하지 않는다.

- ⑤ 2문단에 따르면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 중심 윤리학은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들' 제외한다. 반면 플로리디는 '인공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한다.' 따라서 ㄴ은 생명 중심 윤리학의 입장과 상충하지 않지만, 플로리디의 입장과는 상충한다.

17. 구체적인 사례에의 적용(정답: ㉒)

2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한다. <보기>에서 AI-TCS는 '자유 의지는 없는' 존재이므로, 칸트의 관점에서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일 수 없다. 한편 <보기>에서 플로리디는 AI-TCS가 도덕 행위자에 포함되지만,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유 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 행위자인 AI-TCS에 대해, 칸트와 플로리디는 모두 교통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에 따르면 칸트는 '자유 의지를 지닌 인간만을 도덕 행위자로 인정'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자유 의지가 없는 AI-TCS는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 행위자로 인정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 한편 <보기>에서 AI-TCS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도덕 행위자인 반면, 인간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도덕 행위자라는 점에서 호모포이에티쿠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플로리디의 관점에서 AI-TCS는 호모에티쿠스

에 속하지 않는다.

③ <보기>에서 플로리디는 인간이 호모포이에티쿠스로서, ‘예상되는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전체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호모포이에티쿠스에게 AI-TCS가 초래할 결과를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④ <보기>에서 AI-TCS는 작동 규칙도 변경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에 대해 플로리디는 ‘도덕 행위자에 포함될 뿐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⑤ 1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환원되는 정보적 존재로서, 인포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간과 <보기>의 AI-TCS 모두 인포그에 해당한다. 한편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플로리디는 인포스피어가 생활 환경으로, ‘대상과 주체가 서로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포그들이 상호 의존함으로써 존재하는 생활 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기>에서 플로리디는 그러한 인포스피어의 번영을 감독하는 관리자가 호모포이에티쿠스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플로리디는 호모포이에티쿠스가 인포스피어의 번영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18 ~ 21] (현대 소설)

이병선, 「표구된 휴지」(비연계)

18. 작품의 내용 파악(정답: ⑤)

윗글에서 ‘화가’는 표구를 맡긴 편지가 ‘깨끗이 펼쳐서’ 들어 있는 ㉠을 받아 자신의 화실에 ‘걸어 두’는데, 이때 ‘그림 같기도 하고 글 같기도’ 한 ㉠이 ‘이상하게도 차츰’ 자신의 ‘화실의 중심점이 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했다.

[오답풀이]

① 윗글에서 ‘화가’는 자신의 친구에게서 편지가 적힌 종이를 받고, 이를 ‘표구할 수 있겠’냐고 묻는 친구에게 대상이 ㉠이기 때문에 표구를 ‘할 수 있’다고 답했을 뿐, 대상을 표구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눈앞의 종이를 ㉠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② 윗글에서 ‘화가’는 편지가 적힌 종이를 ‘표구’해 달라는 친구의 요청을 승낙하면서도, ㉠과 같은 이것을 ‘표구해서 뭘 하’냐며 의문을 제기한다. 즉 ‘화가’는 ㉠이라는 표현을 통해 눈앞의 종이를 ‘표구’할 가치가 없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 눈앞의 종이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임에 주목하

여 이를 ㉠으로 지칭한 것이 아니다.

③ 윗글에서 ‘표구사 주인’은 편지가 적힌 종이를 표구하러 온 ‘화가’에게 ‘그게 어떤 편지냐고 묻’는데, 그것이 ‘굉장’하며 ㉠과 같은 것이라는 ‘화가’의 대답에 ‘머리를 가웃거’며 그의 말에 수긍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표구사 주인’이 종이에 담긴 내용에 주목하여 ‘화가’가 이를 ㉠이라 한 말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

④ 윗글에서 ‘화가’는 ‘표구사 주인’에게 편지가 적힌 종이를 맡기며 이것이 ‘국보급’과 같다고 ‘얼버무렸’지만, 표구가 끝난 후 ‘구겨진 휴지’와 같았던 대상이 ‘깨끗이 펼쳐서 액자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대상이 정말 ㉠처럼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는 ‘화가’가 자신이 주문한 물건을 찾아서 본 이후 종이를 ㉠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게 되었음을 보여 주므로, 종이가 ㉠의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며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다.

19. 서술상의 특징 파악(정답: ⑤)

[A]의 ‘청년은 저만치 한구석으로 가 서서 불안스러운 눈으로 멀리 여직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직원 앞으로 달려와’ 등에는 거리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는 은행에 처음 방문해 적은 돈을 저금하는 상황에서 청년이 느끼는 불안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의 여직원이 청년을 ‘불러 세운’ 장면, 청년이 ‘씨 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은 장면 등에서 청년과 여직원의 대화 상황이 나타나지만, 대화 내용을 간접 인용하지 않았으며, 특정 인물을 비판하지도 않았다.

② [A]의 ‘생전 처음 그는 씨 자가 붙은 자기 이름을 들었던 것이다.’ 등에서는 서술자가 청년에 대한 정보를 부연하고 있을 뿐,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지 않았다.

③ [A]에서는 은행에 방문한 청년이 자신의 돈을 저금하는 단일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드러내지 않았다.

④ [A]의 ‘청년은 여직원과 안내원에게~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나갔다. 통장을 확인할 경황도 없이.’에서는 불완전한 문장으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고 있을 뿐, 추측하는 진술로 장면 서술을 마무리하지 않았다.

20. 소재의 기능 및 특징 파악(정답: ②)

윗글의 편지에는 ‘장손’, ‘구장네탄실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을 참고할 때,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라는 내용은 수신자가 적극적으로 혼사를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편지는 혼사와 관련하여 수신자의 행동을 촉구하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수신자의 현재 상황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윗글의 편지에는 ‘우물집할머니’의 죽음, ‘장손’과 ‘구장네탄실이’의 혼인, ‘앞집순이’의 소식 등이 담겨 있다. 이는 수신자의 가족이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던 지인들의 소식을 외지에 있는 수신자에게 전한 것이므로, 편지에는 수신자도 알 만한 사람들의 소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윗글의 편지에 포함된 내용 중 ‘밥묵고배아프면 소금한즙무그라하더라.’라는 조언을 통해 아픈 상황이 생겼을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윗글의 편지에 포함된 내용 중 ‘니무슨주변에고 기목건나. 콩나물무거라. 참기름이나마니쳐서무그라.’라는 내용을 통해 발신자가 수신자의 먹을거리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조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윗글의 편지에 포함된 내용 중 ‘돈조타. 그러나 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에서 재물보다 수신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②)

<보기>에 따르면 「표구된 휴지」는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 시점과 시공간적 배경이 다른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윗글에서는 ‘구석으로 갔다’라는 표현을 통해, ‘청년’이 은행에 돈을 맡기던 내용의 ⑥를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⑥ 이후에 이어지는 ‘이게 바로 그 지게꾼 청년이 동전을 싸 가지고 온 종이지.’에서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청년이 동전을 싣 ‘종이’가 ①의 ‘편지’임을 드러내며 두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게’로 이어지는 ①의 내용은 시간적으로 ⑥의 내용 이후에 일어난 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⑥에서 ①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게’라는 지시 표현을 사용하여 ⑥에서 ①로 시간적 선후가 역전되면서 이어지는 부분을 연결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표구된 휴지」는 외화와 내화가 연결될 때, 한 문단 안에서 이어가는 방식으로 두 이야기를 연결한다. 윗글에서 ‘지게꾼이 있단다’라는 표현은 ④에서 ‘화가’가 친구에게 ‘지게꾼 청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상황을 드러내며, ‘은행’의 ‘안내원이 막았다’라는 첫 문장은 이전 문장과 같은 문단에서 ‘화가’가 전해 들은 ⑥의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즉 해당 서술은 ④에서 ⑥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한 것이다.

③ <보기>에 따르면 「표구된 휴지」에서 외화에 또 다른 내화가 삽입될 때는 편지의 내용과 형태에 대한 ‘화가’의 흥미와 관심이 드러난다. 윗글의 ①에서 친구는 자신이 전해 준 사연과 관련된 ‘편지’에 대해 ‘우연히 발견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후 ‘우물집할머니~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라는 편지 내용이 삽입된 후,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로 인해 ‘비שי시 웃음이 새어 나’오는 ‘화가’의 상태가 서술된 것은, 편지에 담긴 일상적인 사연과 이를 ‘표구’하려는 친구의 장난기를 ‘화가’가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보기>에 따르면 「표구된 휴지」에서는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통해 ‘화가’가 떠올린 편지의 내용을 보여 주기도 한다. 윗글에서 ‘니떠나고메칠안이서송아지났다’라는 ③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친구가 ‘전근’을 가게 되어 ‘비행기가 떠날 때’라는 이동의 상황을 계기로, ‘화가’가 누군가가 떠난 상황을 언급한 편지의 내용을 환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표구사에 맡긴 채 ‘창호지 편지를 감감히 잊어버리고 있’던 ‘화가’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길’로 ‘표구사’에 가 편지를 찾아오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⑤ <보기>에 따르면 「표구된 휴지」에서는 거듭 제시된 내용을 통해 ‘화가’가 편지를 감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음을 알려 주기도 한다. 윗글에서 편지를 표구한 ‘액자’를 찾아온 뒤 ‘화가’가 ‘액자를 간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차츰 그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는 것은, ‘니는빨리장가안들어야건나.’, ‘돈조타. 그러나너거엄마는돈보다도너가더조타한다’ 등의 편지 내용을 ‘나’가 반복적으로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2 ~ 26] (고전 시가 / 현대 수필)

(가) 홍정유, 「동유가」(연계: 수능특강 문학 64쪽)

(나) 이태준, 「해촌 일지」(수능특강 문학, 수능완성 작가 연계)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정답: ③)

(가)는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 있어 / 뿔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에서 화룡담의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모습에 대해 감탄하거나 사자봉의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하여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는 ‘해풍에 자란 솔들’, ‘달빛만이 짝 — 차 있었다.’,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등에서 ‘푸르’면서도 ‘윽탁’한 ‘솔’과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까지 그 빛을 ‘널리 비치’는 달의 ‘성스’러운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글쓴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화룡담과 사자봉의 전설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한편 (나)의 글쓴이는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까지 비추는 달의 모습과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드러내고 있을 뿐, 이를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지 않았다.

② (가)는 금강산 여행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나)는 ‘솔만 보면 봄인 듯하다.’,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에서 특정 계절을 떠올리는 글쓴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을 뿐,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지 않았다.

④ (가)는 개별 자연물에 대한 관찰과 자연물에 얽힌 전설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에 빗대어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나)는 자연물을 보고 자신이 받은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사색을 펼칠 뿐, 현실에서 겪는 삶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⑤ (가)는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워 ‘만물초’로 가는 여정을 포기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시하여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는 자연의 극한적 상황을 제

시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도 나타나지 않았다.

23. 작품 간 비교 감상(정답: ③)

④는 ‘만물초 구경하러 준비하고 내려가니’를 통해 화자가 ‘만물초’를 구경하러 가기 위해 가려던 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⑥는 글쓴이가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이 좋다’며 실제로 걷고 있는 길로, 글쓴이는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본 적이 없다’며 감탄하고 있으므로, ⑥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④는 ‘청명한 일기에도 구름 끼면 못 보는데 / 하물며 비 오는 날 지척을 분간하랴’를 통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길임을 알 수 있다.

② ⑥는 ‘낮에도 텅 —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를 통해 사람을 마주치지 않는 한적한 길임을 알 수 있다.

④ ④는 만물초를 구경하기 위해 가려는 길일 뿐, 화자가 일행을 찾아 떠나는 길이 아니다. 한편 ⑥는 글쓴이가 바다로 산책을 가는 길일 뿐, 일행을 마중하러 나가는 길이 아니다.

⑤ ④는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신만고 들어가서’를 통해 험하고 어려운 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⑥는 ‘정하고 고운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걷기에 편한 길임을 알 수 있다.

24. 작품의 내용 파악(정답: ④)

[A]에서 화자는 사자봉의 모습을 관찰하고 중에게서 전해 들은 전설을 소개한 후, 이를 현실의 모습과 비교해 보고 있다. 이때 ‘건너편 산’에 올라간 것은 전설 속 화룡으로, 화자는 ‘건넌산’을 바라보고 있을 뿐, ‘건너편 산’에 올라가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화자는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굽어보되 / 바위 중턱 파인 곳에 돌 하나 끼어 있다’에서 자신이 직접 관찰한 사자봉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A]에서 화자는 ‘저 바위의 사자가 화룡더러 말하기를 / 이내 몸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 / 네가 재주 많다 하니 내 발 조금 고여 다오’에서 ‘중’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언급하며 사자봉 중턱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다.

③ [A]에서 화자는 ‘화룡이 옮겨 여겨 건너편 산에

올라 /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 괴었다 하네'에서 '중'으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통해 파인 곳에 끼어 있는 '돌 하나'가 화룡이 재주를 부려 옮긴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⑤ [A]에서 화자는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 이 돌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하다'에서 건넌산의 틈과 사자봉의 돌을 비교하며 이 둘의 크기가 유사함을 제시하고 있다.

25. 작품의 내용 이해(정답: ②)

(나)의 글쓴이는 '넓고 양편에 소나무'가 서 있는 길을 걸으며 그 길이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가 걸었으면 싶을 정도로 '정하고 고운' 곳이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이후 '길이 끝나'는 곳에 의외의 물건인 '철봉'이 '떡 뺌치'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초현실과의 그림'과 같으며 '철봉'으로 '뛰어가 매달리어 '턱걸이'를 한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에 대한 상상을 한 후, '철봉'이 있는 '초현실과의 그림' 같은 공간에서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의 글쓴이는 '해풍'을 맞고 자란 '술'들이 '통만 굵고 가지는 적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그 생김새가 '파라술' 같으며, '그 밑에 돛자리나 깔아 놓으면 '훌륭한 정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의 글쓴이는 '뽕 — 안 수말'이 '눈보라처럼' 일어나고 '물결이 세'게 치는 바닷가의 풍경을 바라보며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글쓴이는 '보름달'이 뜬 밤에 '다시 여관'을 나와 '달빛만이 짝 — 차 있'는 길을 걸으며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까지 세상 곳곳을 '널리 비치'는 달의 속성을 떠올리고 있다.

⑤ (나)의 글쓴이는 달빛이 가득한 길을 걸으며 '미물처럼 조그마한 사람'과 달리 '끝없는 사막', '별의 세계'에까지 '무섭도록 크'게 '널리 비치고 있'는 달빛의 무한함에 대해 사색하고 있다.

2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③)

<보기>에 따르면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는 기행 주체는 여행 장소의 풍경 등을 체험하면서 감흥을 얻는다. (가)에서 '우물집'을 '문 열고 구경하'는 것은, '극락고개'를 넘어 '주막집'에 이르게

된 화자가 그 '바로 곁'에 지어져 있는 공간을 확인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는 동일한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나)에서 '산산'함에도 '여관을 나섰다'는 것은, '보름달'이 뜬 것을 보고 '낮에도' 왔었던 길을 '밤'에 다시 찾아가 걸으면서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까지 '널리 비치고 있'는 달빛을 느끼며 감흥을 새로 얻고자 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가)에는 여행 장소에서의 체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기록하려는 양상이 나타난다. (가)에서 '점심을 먹은 후'에 '극락고개'를 넘어 '오 리 남짓' 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구체적인 때와 거리 등을 언급함으로써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절'에서 '주막집'으로 장소를 이동한 과정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보기>에 따르면 (나)에는 여행 장소에서 관심을 기울인 대상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려는 양상이 나타난다. (나)에서 '술'의 모습을 '푸르고 '윤택하다'고 표현한 것은, '봄'처럼 생기 있고 반짝이는 '술'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글쓴이가 '송전'에서 관심을 갖게 된 '술'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보기>에 따르면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가)에서 '조반' 먹은 것을 '이십 일 일'로, (나)에서 '동해여관'으로 숙소를 정한 것을 '7월 3일(금)'으로 날짜를 밝혀 기록한 것은, 모두 여정의 과정에서 해당 시기에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정보를 일기 형식을 활용하여 남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보기>에 따르면 (가)와 (나)의 기행 주체는 여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을 일기 형식을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가)에서 '주막 주인'이 '만류'한 일을 기록한 것은, '비 오는 날'에는 '지척 분간'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정보를 제시하며 '만물초' 구경하는 일을 미루라고 권유한 상황을 화자가 기억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나)에서 '주인'이 '보름달'이라 답한 일을 기록한 것은, '주인'으로부터 '밤'에도 '창'밖이 밝은 이유가 '보름달' 때문이라는 정보를 얻게 된 후, '달빛'이 가득한 밤길을 걸었던 경험을 글쓴이가 기억할 만한 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27 ~ 30] (고전 소설)

작자 미상, 『김진옥전』(연계: 수능특강 문학 117쪽)

27. 작품의 내용 이해(정답: ①)

㉠은 ‘노인’이 자신의 ‘부친’임을 알아차린 데 따른 ‘진옥’의 반응일 뿐,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반응이 아니다.

[오답풀이]

㉡ ㉢은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상대가, ‘사생존망을 모르’고 지냈던 자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다. 이는 ‘노인’이 ‘기절하고 엎어지’는 등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 ㉣은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는 말을 들은 ‘진옥’이 ‘힘을 다하여 보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다. 이는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인 ‘정병 팔만’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 ㉤은 ‘진옥’의 실종 소식을 들은 ‘유 승상’의 반응으로, 이는 ‘유 승상’이 ‘진옥’의 가족들인 ‘부인과 소저’와 함께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진옥’의 생환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 ㉥은 ‘싸움을 돋우’며 ‘풍운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국 용왕’의 반응으로, 이는 ‘동국 용왕’이 ‘비룡마를 타고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며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진다.

28. 소재의 기능 파악(정답: ①)

㉠은 ‘만경창과’의 한가운데에서 들려온 소리로, 바다 위에서 나는 청아한 소리를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일엽편주’를 탄 채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인 ‘일위 동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 ㉢은 동자가 타고 나타난 것으로, 그는 진옥에게 ‘배를 잠시 멈추’라고 말한 후 ‘수부 왕이 청하시니 가’자고 청하고 있다. 따라서 ㉢은 인물들이 계획했던 행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소재라고 볼 수 없으며, 진옥과 그의 부친이 당초 목적인 ‘고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소재라고도 볼 수 없다.

㉢ ㉣은 용왕과 진옥이 대면하는 장엄한 장소이므로,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어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 ㉤은 동국 용왕이 사용하는 무기로, 이를 본 원수는 이에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벤다. 따라서 ㉤은 직면한 공격에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주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 ㉥은 ‘적진 군중’에서 항복을 인정하는 문서이므로,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라고 볼 수 없다.

29. 감상의 적절성 평가(정답: ③)

㉠은 진옥이 귀환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황제가 보인 반응을 서술한 것이다. 황제는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듣고 ‘다른 제장 군졸들’이 무사히 귀국한 것을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옥이 탄 배가 바람결에 떠 흘러간 것을 ‘이상하게 여기’므로,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을 그럴듯하다고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는 노인과 진옥이 나눈 대화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노인이 진옥에게 ‘갑자년 난중에 잃’은 ‘자식의 이름’이 ‘김진옥’이라고 말함으로써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때 진옥의 부친인 노인은 진옥과 이별한 ‘갑자년 난중’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 ㉢는 진옥과 노인이 부자지간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의 이야기를 서술한 것이다. 노인과 진옥은 서로의 관계를 확인한 후, ‘전후사’를 ‘날날이 설화’한 후에 ‘배를 타’고 ‘고국으로 향’한다. 이후 ‘배’를 타고 ‘고국’으로 가고 있는 진옥의 앞에 ‘청의를 입’은 ‘동자’가 나타나 ‘배를 잠시 멈추’라고 요청하자, 진옥은 부친인 노인에게 ‘어찌 하오리까?’라고 말하며 그의 의견을 묻고 있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 ㉤는 진옥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주가 보인 반응을 서술한 것이다. 공주는 진옥이 ‘부마’가 된 것을 ‘시기’하여 ‘모해할 뜻’을 두고 있다가 진옥이 ‘표풍’하여 생사를 알지 못하게 되자, 이를 기회로 삼아 진옥이 ‘월국으로 도망’하여 ‘중국을 해’하려고 한다고 황제에게 전하며 계략을 꾸미고 있다.

㉤ ㉥는 공주의 모함을 들은 황제로 인해 진옥의 가족들에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 서술한 것이다. 황제는 진옥이 ‘월국으로 도망’쳐 ‘중국을 해’하려 한다는 공주의 모함을 듣고, 이를 ‘그럴 듯’하다고 생

각한다. 이에 황제는 진옥의 장인인 ‘유 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죽이려’ 하므로, 진옥을 포함하는 공주의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들은 위기에 처하고 있다.

3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②)

<보기>에 따르면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한다. 윗글에서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은, 초월적 존재인 ‘동국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는 상황에서 진옥으로 하여금 ‘일신을 아끼지 말’고 초월적 세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한 것일 뿐,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김진옥전」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된다. 윗글에서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 인간 세계는 간극이 있어 ‘서로 미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김진옥전」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려진다. 윗글에서 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과 ‘대진’하는 장면에서 ‘남해 용궁’에서도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인간 세계인 ‘중국’에서 전란이 일어난 것과 같이 초월적 세계인 ‘용궁’에서도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는다. 윗글에서 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제장’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존재인 용궁의 ‘제장’으로부터 ‘장사진’을 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의 자격을 증명한다. 윗글에서 용왕이 진옥을 ‘치사’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

며 ‘표창’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적병을 소멸’하면 ‘표창’하겠다는 용왕의 약속된 보상을 받음으로써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 34] (현대시)

(가)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비연계)

(나) 신석정, 「역사」(연계: 수능특강 문학 92쪽)

3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정답: ③)

(가)는 ‘살구꽃’, ‘꽃구름’, ‘소’와 같은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삶과 시간의 의미에 주목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는 ‘달래꽃’, ‘햇볕’, ‘바람’, ‘벌나비’와 같은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생명력과 저력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는 자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분홍빛’, ‘허영계’, ‘연분홍’과 같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살구꽃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을 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나)는 시각적 심상인 ‘푸른’, 촉각적 심상인 ‘뜨거운’을 활용하고 있을 뿐,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② (가)는 ‘아 하늘의 기둥들!’에서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대상의 모습에 대한 화자의 감탄을 드러낸 것일 뿐,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한 것이 아니다. 한편 (나)는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지 않았다.

④ (가)는 ‘가속 페달’과 ‘천천히’라는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할 뿐,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지 않았다. 한편 (나)는 ‘다사롭게 타오르는’과 ‘뽕뽕 얼어붙었던’이 대립적인 의미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달래꽃’의 강인한 생명력과 저력을 강조하는 것일 뿐,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지 않았다.

⑤ (가)는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검은 등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다는 표현에서 대상을 의인화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화자의 추측일 뿐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한편 (나)는 ‘푸른 수의’를 ‘벗고 싶은 달래꽃’에서 자연물을 의인화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말을 주고받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았다.

32. 구절의 의미 파악(정답: ㉔)

[E]에서 화자는 ‘꽃구름’이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꽃구름’을 ‘뒤돌아’보며 ‘하늘의 기둥들!’이라는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자신의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관찰하는 대상인 ‘꽃구름’과 화자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일 뿐, 화자가 ‘꽃구름’을 계속 관찰하고 싶어 하므로, 화자와 대상의 정서적 거리는 멀어지지 않았다.

[오답풀이]

㉑ [A]에서 화자는 마을 안에 차를 집어넣은 후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을 만나고, 이를 ‘분홍빛 더 실릴 꽃구름’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화자가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㉒ [B]에서 화자는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다고 하고,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어서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화자는 ‘하늘 구름’의 긍정적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㉓ [C]에서 화자는 ‘다리를 건너’며 ‘천천히 차’를 물고 ‘차 거울’을 보며 ‘꽃구름’을 관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㉔ [D]에서 화자는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는 ‘검은 둥치들’을 떠올리며 이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운전 중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시어의 의미 및 기능 파악(정답: ㉔)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역사’로 상징되는 ‘환히 트인 길’을 지향하는 화자가 ‘더불어 가야 할’ 대상인 ‘네 고운 청춘’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표현일 뿐,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 표현이 아니다.

[오답풀이]

㉑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낸 표현이다.

㉒ 2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부정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 표현이다.

㉓ 2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은 ‘달래꽃의 긴긴 역사’를 비롯한 ‘위대한 힘’이나 이들이 만들어 내는 ‘모든 것’이며, 이를 ‘찬양’한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 표현이다.

㉔ 3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다’고 한 것은, 화자가 ‘환히 트인 길’을 가는 데 있어 늘 함께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달래꽃’과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 표현이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정답: ㉔)

(가)에서 화자는 ‘살구꽃’ 핀 마을을 차로 둘러보며 그 감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때 화자는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에는 ‘살구꽃’이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영게 매달려 있’을 것이라며 ‘살구꽃’의 ‘분홍빛’이 사라진 상태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꽃이 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이는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그려 낸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한편 (나)에서 ‘푸른 수의’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제시되어 화자는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을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되는 역사적 전망으로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나)는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오답풀이]

㉑ (가)에서 ‘살구꽃’을 ‘구름’으로, 나무 ‘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은, 화자가 ‘때맞춰’ 꽃을 피운 대상을 통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 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㉒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은 ‘살구꽃’을, ‘때맞춰 갠 벌’의 움직임은 ‘살구꽃’에 몰려 든 생명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화자는 이러한 순간을 포착하여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 이는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 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드러낸

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③ (나)의 화자는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하여,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나)는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⑤ (가)에서 화자가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고 한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인식함을 보여 준다. 한편 (나)에서 화자가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 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준다. 이는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통해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며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다.

선택 과목(화법과 작문) 해설

[35 ~ 37] (화법) 「사이테스」

35. 말하기 전략 평가(정답: ④)

발표자가 발표에서 청중의 질문을 듣고 그에 답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문단에서 ‘그럼에도 생물종을 키우게 된다면 사이테스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라고 언급한 뒤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궁금하시죠?’라고 질문한 것은 생물종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이테스 관련 절차에 대한 질문을 던져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는 것일 뿐, 청중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해 답변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무책임한 행동’이 불러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중 하나’인 ‘사이테스’를 ‘천천히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언급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② 발표자는 도입부와 4문단에서 각각 ‘지난 동물의 날 행사 때 참여했던 설문 조사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생물종을 키우게 된다면 사이테스와 관련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라며 질문을 던진 뒤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2문단에서 사이테스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이라며 사이테스의 개념을 설명하여 낯선 용어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지난 동물의 날 행사 때 참여했던 설문 조사 기억하세요?’라며 질문을 던져 청중의 기억을 환기한 뒤, 설문 조사 결과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우리의 무책임한 행동이 생물종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며 사이테스와 청중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있다.

36. 매체 자료 활용의 적절성(정답: ④)

[자료 3]은 사이테스 부속서별로 등재되어 있는 생물종의 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발표자는 3문단에서 사이테스 종이 ‘멸종 위기 위험 정도에 따라 부속서 1, 2, 3에 구분하여 등재’된다고 언급한 뒤, ㉠에서 [자료 3]을 활용하여 ‘사이테스 부속서 1, 2, 3에 등재되어 있는 종의 수와 각각이 사이테스 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자료 1]은 ‘동물의 날 행사 때’ 진행된 설문 조사의 결과로, [자료 1]에 따르면 동물을 키우고 싶은 의향이 있는 학생은 2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는 ㉡에서 이를 활용하여 ‘동물의 날 행사 때 참여했던 설문 조사’ 결과 ‘동물을 키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 학생들이 키우고 싶어 하는 동물 중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으며, [자료 1]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② [자료 1]에 따르면 동물의 날에 진행된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이 ‘키우고 싶은 동물의 종류’가 6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는 ㉢에서 이를 활용하여 청중이 ‘관심을 갖는 동물이 다양’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사이테스 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③ [자료 2]는 전 세계 사이테스 회원국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발표자는 ㉣에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수많은 사이테스 회원국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사이테스 회원국의 분포를 보여 주고 있을 뿐, 사이테스 종이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자료 3]에 따르면 사이테스 부속서 1에는 2.68%의 생물종이 등재되어 있다. 발표자는 ㉤에서 이를 활용하여 ‘사이테스 부속서 1’에 속하는 생물종은 ‘원칙적으로는 국제 거래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학술 연구 목적인 경우에만’ 국제 거래가 가능하며, ‘부속서 2와 3’에 속하는 동물들은 ‘상업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나 무분별하게 거래될 경우 멸종될 위험이 높은 종들이 등재되어 있’다는 점을 언

급하고 있을 뿐, 사이테스 부속서 1에 해당하는 종만이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37. 반응의 적절성 평가(정답: ①)

‘학생 1’은 사이테스가 ‘불법 거래, 과도한 국제 거래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2문단의 발표 내용을 듣고,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 식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우리 집에 있는 선인장도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지 찾아봐야겠’다고 언급하여 발표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학생 2’는 키우고자 하는 생물종이 ‘사이테스 종에 해당한다면~죽었을 때에도 신고해야’ 한다는 4문단의 발표 내용을 듣고, ‘사이테스 종인 도롱뇽을 키우고 있는데 키우기 전에 신고를 했었’다며 이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뒤, 키우는 ‘도롱뇽이 죽는다면 그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학생 3’은 ‘사이테스 부속서 1에는 호랑이, 표범 등이 등재되어 있’다는 3문단의 발표 내용을 듣고, ‘사이테스 부속서 2, 3에는 어떤 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며 ‘사이테스 종 중 부속서 1에 등재된 종의 예만 드러내고 있어서 아쉬웠’다며 알고 싶은 정보가 발표에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을 뿐,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④ ‘학생 1’이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 식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우리 집에 있는 선인장도 사이테스 종에 해당하는지 찾아봐야겠’다고 언급한 것을 발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고 이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을 뿐, 발표 내용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생 3’은 ‘사이테스 부속서 2, 3에는 어떤 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사이테스 종 중 부속서 1에 등재된 종의 예만 제시하고 있어서 아쉬웠’다며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발표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며 발표 내용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⑤ ‘학생 2’는 키우는 ‘도롱뇽이 죽는다면 그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 발표를 듣기 전 알고 있던 지식을 발표를 듣고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생 3’은 ‘사이테스 부속서 2, 3에는 어떤 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며 ‘사이테스 종 중 부속서 1에 등재된 종의 예만 제시하고 있어서 아쉬웠’다며 자신이 알고 싶은 내용을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이 발표를 듣기 전 알고 있던 지식을 발표를 듣고 수정하고 있지는 않다.

[38 ~ 42] (화법+작문) 「인증 숲 현상」

38. 글쓰기 전략 평가(정답: ①)

(가)에서는 ‘인증 숲에는 운동이나 독서 등 자기 계발과 관련한 것도 있다는 점’을 들어 ‘인증 숲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3문단에서는 ‘운동 인증 숲’과 ‘독서 인증 숲’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인증 숲 현상을 해석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의 1문단에서 ‘자신의 일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고 누리 소통망에 공유하는 ‘인증 숲’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인증 숲 현상의 실태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문단에서 ‘인증 숲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인증 숲이 자기 과시와 허세에 기인한 보여 주기식 행위라고 지적한다.’라며 인증 숲 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인증 숲 현상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의 2문단에서 인증 숲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증 숲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순차적으로 논박하고 있지도 않다.

④ (가)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전제로 인증 숲 현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가)의 2문단에서 ‘인증 숲이 자기 과시와 허세에 기인한 보여 주기식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증 숲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쟁점별로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39.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정답: ㉓)

<보기>에서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도 예상 독자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글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 예상 독자를 명시하여 수정한다는 수정 사항을 반영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두 번째 문장인 ‘바람직한 행위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에는 인증 숏 이외에 공모전이나 캠페인 등도 있다.’라는 문장은 인증 숏 현상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고 있는 글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마지막 문단에는 ‘따라서 인증 숏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가치 있는 생활 양식 확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보기>가 ‘이처럼 다양한 인증 숏은 폭넓은 인간관계의 기반을 형성하여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라는 문장으로 끝나며 글쓴이의 견해가 드러나지 않은 채 글이 마무리되고 있으므로, 글쓴이의 견해와 관련된 제언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의 ‘이와 같이 인증 숏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히 나타난다.’라는 문장이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와 같이 인증 숏이 바람직한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는 공부 인증 숏, 절약 인증 숏, 봉사 인증 숏 등에서도 흔히 나타난다.’라고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부 인증 숏, 절약 인증 숏, 봉사 인증 숏’이라는 예를 추가하여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의 ‘이처럼 다양한 인증 숏은 폭넓은 인간관계의 기반을 형성하여 가치 있는 행위를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이 (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따라서 인증 숏 현상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가치 있는 생활 양식 확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 말하기 내용 생성(정답: ㉓)

(가)의 ㉔에는 인증 숏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인 인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메모 2’에는 ‘한쪽의 관점만 살핀 것은 아닌지?’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나)에서 ‘학생 2’의 두 번째 발화의 ‘혹시 비평문을 쓰기 전에 인증 숏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검토하셨나요?’라며 쓰기 과정에서 인증 숏 현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구현되었을 뿐, 쓰기 과정에서 검토한 관점들을 글에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으로 구현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㉑에는 ‘인증 숏’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으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메모 1’에는 ‘인증 숏 현상 →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이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나)에서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인 ‘선택하신 글감이 왜 현 시점에서 논의될 만한 사회적 현안이라고 보셨나요?’에서 화제를 선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의 ㉒에는 ‘인증숏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인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메모 2’에는 ‘필자와 상반된 관점의 문제점은 뭐지?’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나)에서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인 ‘그런데 인증 숏이 보여 주기식 행위이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는데, 그 지적이 지닌 문제점은 무엇일까요?’에서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㉔에는 ‘운동 인증 숏’의 효과에 대한 ‘○ ○고 정△△ 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메모 3’에는 ‘이 근거만의 효과는?’이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나)에서 ‘학생 1’의 네 번째 발화인 ‘다른 근거 자료와 달리 타인의 소감을 직접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효과를 얻고자 이 근거 자료를 선택해 글에 활용하셨나요?’에서 인터뷰 자료로 의도한 효과를 묻는 질문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㉕에는 ‘독서 인증 숏’과 관련하여 ‘◇◇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매량 증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메모 3’에는 ‘근거의 당성 → 연관성이 있나?’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나)에서 ‘학생 2’의 세 번째 발화인 ‘인증 숏이 독서 문화 활성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근거로 도서 구매량 증가 자료를 활용하셨는데, 연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시나요?’에서 근거 자료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 대화 전략의 적절성(정답: ㉒)

[A]에서 ‘학생 2’는 ‘만약 동아리에 들어오면 구체

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라며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학생 1’은 ‘우리 동아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비평문을 작성해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며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을 언급한 뒤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을 뿐,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학생 1’은 ‘우리 동아리는 사회 현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비평문을 작성해 공유하는 활동을’ 한다며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을 언급한 뒤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을 뿐, ‘지원자’와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경험을 묻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학생 2’는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하고 있을 뿐, ‘지원자’와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경험을 묻고 있지는 않다.

③ [A]에서 ‘학생 2’는 ‘만약 동아리에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라며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질문한 뒤, ‘이유를 포함해 말해 주세요.’라며 답변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며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은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을 언급한 뒤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있을 뿐, 답변에 대한 조건을 추가하며 질문하고 있지는 않다.

④ ‘지원자’는 [A]의 첫 번째 발화에서 동아리의 활동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묻는 ‘학생 1’의 질문에 대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런 활동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고 있을 뿐, 질문을 재진술하여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고 있지는 않다.

⑤ ‘지원자’는 [A]의 두 번째 발화에서 동아리에 들어갔을 때 하고 싶은 활동과 그 이유를 묻는 ‘학생 2’의 질문에 대해 ‘비평문을 모아 출판을 하고 싶’다는 활동을 언급한 뒤 그 이유로 ‘활동 성과가 한 권의 책으로 나오면 더 많은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생각을 들어 답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답하고 있지는 않다.

42. 말하기 내용 추론(정답: ①)

첫째 문장에서 ‘선생님들께 성실함의 대명사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는 타인의 평가를 인용하여 자신의 특성을 밝히고, 둘째 문장에서 ‘이러한 성실함을 토

대로 다양한 기사를 읽고 꾸준히 비평문을 작성해 왔’다며 실제 경험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둘째 문장에서 ‘학급 회장으로서 체육 대회 등 학급 행사를 준비할 때 이 장점을 발휘한 경험이 있’다며 실제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문장에서는 나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타인의 평가를 인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③ 첫째 문장에서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친구들이 긍정왕이라고 부’른다는 자신의 특성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는 실제 경험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제시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첫째 문장에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명료한 근거를 들어 제 주장을 펼치는 연습을 해 왔’다며 실제 경험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는 나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타인의 평가를 인용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⑤ 둘째 문장에서 ‘평소 친구들에게 소통의 달인이라고 평가받아 왔’다며 자신의 특성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는 실제 경험을 언급하며 그동안의 노력을 제시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43 ~ 45] (작문) 「미식 관광」

43. 글쓰기 내용 생성(정답: ⑤)

[초고]의 4문단에서는 ‘미식 체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식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다.’라며 미식 관광을 통한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미식 관광 정책의 시행 전과 후를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1문단에서는 ‘여행 경험의 증가와 여행 관련 방송들의 영향으로, 관광객의 요구가 다변화하고 있다.’라며 관광객들의 요구가 다변화하는 데 영향을 준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② [초고]의 2문단에서는 ‘미식 관광’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음식 관광’에서 더 나아가 개념’으로, 미식 관광이 ‘지역 음식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 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의미한다’며 관련된 용어와의 의미 차이를 드러내며 미식 관광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③ [초고]의 3문단에서는 ‘지역 간 음식들이 유사해

지고 토종 식재료가 사라져가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지역의 맛을 보존하고 개량하여 지역의 식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미식 관광이 기여'한 다며 지역 식문화의 현 상황과 관련하여 미식 관광이 갖는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④ [초고]의 3문단에서는 '프랑스와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지역 식문화 보존의 수단으로 미식 관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도 관련 정책을 도입한 지역들이 있다.'라며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미식 관광을 활용하고 있는 곳들을 언급하고 있다.

44. 내용 생성의 적절성(정답: ④)

[초고]의 3문단에서는 '미식 관광'이 '지역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으며, 4문단에서는 '지역 경제의 측면에서도 미식 관광의 효과가 크다.'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식문화와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 미식 관광'이라는 제목에는 [초고]의 3문단에 제시된 '지역의 식문화'라는 단어와 4문단에 제시된 '경제'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미식 관광에 대한 효과를 포괄하고,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초고]의 제목으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미식 관광, 지역의 특색을 음식으로 경험하다'라는 제목에는 [초고]의 3문단에 언급된 지역 식문화와 관련된 효과와 미식 관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초고]의 4문단에 제시된 미식 관광의 효과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3문단에서 쓰인 단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미식 관광이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에는 [초고]의 3문단과 4문단에 제시된 미식 관광의 효과를 포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각 문단에 언급된 '문화'와 '경제'라는 단어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식 관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미식 관광, 지역의 식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다'라는 제목은 [초고]의 3문단에 제시된 미식 관광의 효과와 문단에서 언급된 '지역 식문화', '보존', '발전'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미식 관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초고]의 4문단에 제시된 미식 관광의 효과와 언급된 단어를 찾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⑤ '지역 농가의 안정적 이윤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제목은 [초고]의 4문단에 제시된 미식 관광의

효과와 관련하여, 4문단의 '지역 농가들은 유통 비용 절감과 안정적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지역 농가', '안정적 이윤', '보장'이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미식 관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는 [초고]의 4문단에 제시된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의 효과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초고]의 3문단에 제시된 미식 관광의 효과와 언급된 단어를 찾아 활용하고 있지 않다.

45. 자료 수집 및 활용의 적절성(정답: ②)

[초고]의 3문단에서는 '지역 식문화는 전통 조리법, 향토 재료를 활용한 음식, 역사적으로 오래되어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미식 식당 등으로 대표된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ㄱ에는 '○○시 지역 대표 미식 식당 ◇◇는 ○○시 여행지 중 방문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에 당일 여행을 오는 사람 중 99.2%가 ◇◇ 방문이 여행 동기라고 응답했다'는 내용의 신문 기사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여행지를 결정하는 데에 지역을 대표하는 미식 식당이 미치는 영향을 이끌어 낼 수는 있으나, 지역 대표 미식 식당이 관광객들의 여행 기간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내용은 이끌어 낼 수 없으며 지역 식문화를 대표하는 미식 식당이 갖춰야 할 요건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오답풀이]

① [초고]의 5문단에서는 '현재 미식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여러 지역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런 노력이 아직 음식 관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ㄱ에는 '정부 부처나 지방 자치 단체들이 내놓은 관광 정책들이 지역 내 맛집 홍보에 집중된 경우가 많다'는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국내 지역들이 진행 중인 노력이 음식 관광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이유로 5문단을 보강할 수 있다.

③ [초고]의 4문단에서는 '미식 체험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식 관광객들이 유입되면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ㄷ에 제시된 '○○시 지역 대표 미식 식당'인 '◇◇ 매출액'과 '○○시 관광 총 소비액'을 연도별로 나타낸 그래프에 따르면, '◇◇ 매출액'과 '○○시 관광 총 소비액'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함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지역 대표 미식 식당의

매출액과 해당 지역 관광 총소비액이 함께 증가함을 미식 관광객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로 4문단을 보강할 수 있다.

④ [초고]의 2문단에서는 ‘미식 관광’이 ‘방문객들이 음식을 통해 그 지역의 맛을 즐기고 역사적, 문화적 지식까지 함께 얻게 함으로써 지역과 연결되는 총체적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ㄱ에는 ‘음식 관광 정책에서 더 나아간 미식 관광 정책’으로 ‘지역 특산물이나 향토 재료를 활용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지역의 특색을 깊이 있게 체험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가 인터뷰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또 ㄴ에는 ‘프랑스의 △△△시가 주도하여 개발한 올리브 미식 프로그램’이 ‘올리브를 주재료로 하여 개발된 음식을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올리브 품종별 특성, 향미를 분석하는 방법 및 지역의 올리브 생산 역사까지 배울 수 있어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미식 관광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된 내용과 관련 정책의 성공 사례를, 미식 관광이 관광객들에게 총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2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⑤ [초고]의 1문단에서는 ‘관광객들의 요구가 다변화하며 ‘음식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수요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의 새로운 흐름으로 ‘미식 관광’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한편, <보기>의 ㄴ에는 ‘2022년에는 관광객들의 해당 지역 방문 동기로, 이전까지 늘 1위를 지켰던 지역 자연 경관 감상을 제치고 미식 프로그램 참여가 1위로 꼽혔다.’라는 연구 보고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또 ㄷ에는 ‘○○시 지역 대표 미식 식당 ◇◇는 ○○시 여행지 중 방문 관광객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하는 동기의 순위가 변화한 것과 여행 중 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의 순위, 음식 관련 특별한 경험에 대한 관광객의 수요를 보여 주는 내용으로 1문단을 구체화할 수 있다.

선택 과목(언어와 매체) 해설

[35 ~ 39] (언어)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60, 64쪽)

35. 용언의 활용과 표기에의 반영(정답: ④)

2문단에서 ‘어간 말 모음을 가진 용언이 모음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 말 모음이 ‘으’이면 어간 말 모음 ‘으’가 탈락한다.’라고 하였으며, “ㄹ 반모음 첨가를 제외하고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라고 하였다. ‘본떠’는 어간 ‘본뜨-’에 어미 ‘-어’가 결합한 것으로 어간 말 모음 ‘으’가 탈락한 것이며,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된 예시이다. 한편 ‘닿아서[다라서]’는 어간 ‘닿-’에 어미 ‘-아서’가 결합하여 ‘ㅎ’이 탈락한 것이다. 1문단에서 ‘ㅎ’ 탈락은 적용되더라도 ‘음운 변동 결과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닿아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떠’는 ‘닿아서’와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는 이해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용언이 활용할 때에는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였고, 3문단에서 ‘ㄹ’ 불규칙, ‘ㄷ’ 불규칙 활용 용언은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용언이 불규칙 활용해도 어간, 어미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② 1문단에서 “‘쌓다’는 ‘쌓+고[싸코]’에서 거센소리 되기, ‘쌓+아[싸아]’에서 ‘ㅎ’ 탈락, ‘쌓+는[싼는]’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용언의 어간이 여러 어미와 결합할 때 한 가지 음운 변동만 일어난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서 “‘날다’의 경우에는 ‘날+고[날고]’, ‘날+아[나라]’, ‘날+니[나니]’로 활용하는데, ‘ㄷ’ 탈락이 일어날 때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된다.”라고 하였다. ‘(문제를) 푸니’의 ‘푸니’는 어간 ‘풀-’에 어미 ‘-니’가 결합하여 ‘ㄷ’ 탈락이 일어나고, 이러한 음운 변동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푸니’가 음운 변동이 일어났지만 표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어간 말이 ‘ㄹ’일 때, ‘으’ 탈락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ㄹ’ 불규칙은 어간이, ‘ㄷ’ 불규칙은 어미가 바뀌어 활용한다고 하였다. ‘(정상

에) 이르다'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이르러'로 활용하는 '러' 불규칙 용언이고, '(주의 사항을) 이르다'는 어미 '-어'와 결합하면 어간이 '일르'로 바뀌어 '일러'로 활용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따라서 '(정상에) 이르다'와 '(주의 사항을) 이르다'의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36. 용언의 활용과 음운 변동(정답: ㉔)

'(회사에) 다녀'는 어간 '다니-'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 말 모음 '이'가 반모음 'j'로 교체된 후 '어'와 결합하여 'ㄱ'이 된 것이므로 ㉔의 사례로 적절하다. 그러나 '(사람들과) 어울리려고'는 어간 '어울리-'에 어미 '-려고'가 결합한 것으로, 원래 형태가 '려'인 것이지 어간 말 모음 '이'가 반모음 'j'로 교체된 것이 아니므로 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회사에) 다녀'는 ㉔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는 ㉔의 사례로 추가할 수 없다. 참고로 '어울리다'는 '어우르-'의 '르'로 끝나는 어근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어간이 '어울르-'로 바뀐 것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할 때에도 불규칙 활용 양상을 보인다.

[오답 풀이]

① '(다리를) 파서'와 '(꽃을) 봐서'는 어간 '꼬-'와 어간 '보-'에 각각 어미 '-아서'가 결합한 것으로, 어간 말 모음 '고'가 반모음 'w'로 교체된 후 뒤의 '아'와 결합하여 '나'가 된 것이기 때문에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따라서 '(다리를) 파서', '(꽃을) 봐서'는 모두 ㉑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어려움을) 버티어'는 어간 '버티-'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버티어]로 나타나지만, 어미 '-어'에 반모음 첨가가 일어난 [버티여]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㉔의 사례로 적절하다. 한편 '(두 점을) 이어'는 어간 '잇-'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잇-'의 'ㅅ'이 탈락하는 'ㅈ' 불규칙 용언이므로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점을) 이어'는 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버티어'는 '(두 점을) 이어'와 달리 ㉔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④ '(잘못을) 나무라서'는 어간 '나무라-'에 어미 '-아서'가 결합한 것으로 어간 말 모음 '아'와 '아'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가 결합할 때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한 것으로 ㉔의 사례로 적절하다. 한편 '따라서'는 어간 '따르-'에 어미 '-아서'가 결합한

것으로 어간 말 모음 '으'가 탈락한 것이기 때문에 ㉔이 아닌 ㉔의 사례이다. 따라서 '(잘못을) 나무라서'는 '(유형을) 따라서'와 달리 ㉔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⑤ '(김치를) 담가'와 '(돈을) 모아'는 어간 '담그-'와 '모으-'에 각각 어미 '-아'가 결합한 것으로, 어간 말 모음 '으'가 탈락한 것이기 때문에 ㉔의 사례로 적절하다. 따라서 '(김치를) 담가', '(돈을) 모아'는 모두 ㉔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76, 90, 226쪽)

37. 피동사, 서술절, 본용언과 보조용언(정답: ㉕)

제시 문장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 외출했다가 감기에 걸려 버렸다.'에서 '걸려 버리다'의 '버리다'는 '완료'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므로 ㉔이 실현되었다. 한편 이 문장의 '보여'에는 동사 어근 '보-'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보이-'가 사용되었으므로 ㉑도 실현되었다. 따라서 '제시 문장'에서 ㉔은 실현되었지만 ㉑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수행 결과'는 적절하지 않으며, ㉑과 ㉔이 모두 실현된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제시 문장 '우리나라 선수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실력자이다.'에는 동사 어근 '손꼽-'에 피동 접미사 '-히-'가 결합한 피동사 '손꼽히-'가 사용되었으므로 ㉑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제시 문장에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이라는 관형사절만 있고 서술절은 없으므로 ㉔은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 문장에 '㉑은 실현되었지만 ㉔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수행 결과는 적절하다.

② 제시 문장 '내 짝은 어제 졸업식장에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모아 왔다.'에는 동사 어근 '담-'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피동사 '담기-'가 사용되었으므로 ㉑은 실현되었다. 한편 서술어 '모아 오다'의 '오다'는 '진행'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라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본용언이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가 아니므로 ㉔은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 문장에 '㉑은 실현되었지만 ㉔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수행 결과는 적절하다.

③ 제시 문장 '친구가 마음이 어려서 나는 친구의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에서 안건문장 '마음이 어려서'는 주어 '친구가'의 서술어로 사용되었으

므로 ㉠은 실현되었다. 한편 ‘넘기다’는 ‘지나쳐 보내다’의 의미로 사용된 동사로,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한 피동사가 아니므로 ㉡은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 문장에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수행 결과는 적절하다.

④ 제시 문장 ‘형이 골동품 가게에서 싸게 산 우표가 올해 들어 값이 올랐다.’에서는 안건문장 ‘값이 올랐다’가 주어 ‘우표가’의 서술어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제시 문장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술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은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시 문장에 ‘㉠은 실현되었지만 ㉡은 실현되지 않았다.’는 수행 결과는 적절하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97쪽)

38. 관계 관형사절과 동격 관형사절(정답: ㉠)

‘그들은 함께 어울렸던 기억을 더듬어 나갔다.’에서 관형사절은 ‘함께 어울렸던’이다. 이때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기억’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으며, ‘(그들이) 함께 어울렸다.’가 ‘기억’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아니라 ㉡의 예로 적절하다. 참고로 이때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이유는 안은문장의 주어 ‘그들은’과 관형사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놀랐다.’에서 관형사절은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이다. 이때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사건’은 관형사절 내에서 ‘어제 박물관에서 (사건이) 일어난’과 같이 생략된 주어에 해당하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이 손목시계는 방수가 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에서 관형사절은 ‘방수가 잘 되지 않는’이다. 이때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단점’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으며, ‘(이 손목시계는) 방수가 잘 되지 않는다.’가 ‘단점’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참고로 이때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이유는 안은문장의 주어 ‘이 손목시계는’과 관형사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이다.

④ ‘언론에서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에서 관형사절은 ‘전쟁이 끝날’이다. 이때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가능성’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으며, ‘전쟁이 끝나다.’가 ‘가능성’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⑤ ‘친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한 경험을 소중히 여겼다.’에서 관형사절은 ‘새벽마다 운동을 한’이다. 이때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는 ‘운동’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으며, ‘새벽마다 운동을 하다.’가 ‘경험’의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 예로 적절하다. 참고로 관형사절의 주어가 생략된 이유는 안은문장의 주어 ‘친구는’과 관형사절의 주어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연계: 수능특강 언어와 매체 101-102쪽)

39.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정답: ㉢)

‘뚝게(뚝개)’는 체언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고, 끝음절 모음이 ‘ㄱ’이므로 중성 모음인 ‘ㅣ’와 마찬가지로 받침 유무에 따라서만 조사가 결합되어 목적격 조사 ‘를/를’ 모두와 결합할 수 있었다. 따라서 ‘뚝게’는 ㉠과 ㉡에 들어갈 단어이다.

‘바를(바다)’은 체언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ㅏ’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했다. 따라서 ‘바를’은 ㉠에 들어갈 단어이다.

‘염규(부추)’는 체언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ㅍ’이므로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했다. 따라서 ‘염규’는 ㉡에 들어갈 단어이다.

‘아바님(아버님)’은 체언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고, 끝음절 모음이 중성 모음인 ‘ㅣ’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을’과 모두 결합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아바님’은 ㉠과 ㉡에 들어갈 단어이다.

‘썸(꿈)’은 체언의 끝음절에 받침이 있고,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ㅌ’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했다. 따라서 ‘썸’은 ㉡에 들어갈 단어이다.

‘벼로(벼루)’는 체언의 끝음절에 받침이 없고,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인 ‘ㅏ’이므로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했다. 따라서 ‘벼로’는 ㉡에 들어갈 단어이다.

㉡에 들어갈 단어는 ‘아바님’, ‘썸’이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에 들어갈 단어는 ‘바를’, ‘아바님’이므로, ㉠에 들어갈 단어가 ‘바를’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에 들어갈 단어는 ‘뚝게’, ‘벼로’이므로, ㉡에 들어갈 단어가 ‘염규’, ‘벼로’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에는 들어갈 단어는 ‘뚝게’, ‘염규’이므로, ㉡에 들어갈 단어가 ‘뚝게’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과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뚝게’이므로 ㉠과 ㉡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아바님’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0 ~ 43] (매체) 학급 자율 활동 계획서

40. 매체 활용에 대한 이해(정답: ㉕)

자동 저장됨을 알려 주는 표지가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모든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라는 표지가 있는 (가)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제안' 기능을 활용하여 학급 활동 기획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작성한 공동 문서인 '학급 자율 활동 계획서'에 대한 변경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현재 접속 중'의 체크 표시를 통해 학급 활동 기획부 학생들이 공동 문서에 실시간으로 접속 중인 다른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 '준모'는 동그라미표가 있는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채현'의 의견에 반응하고 있다.

④ (나)에서 '채현'은 자료 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학급 자율 활동 계획서'와 관련된 '일정 수정_채현.jpg'를 제공하고 있다.

41. 매체 자료에 대한 소통 양상(정답: ㉑)

'민정'이 '학급 자율 활동 계획서'에 적은 "책 선정"을 '서로 다른 책 선정'으로 제안'에 대해 '재균'은 '모둠마다 각각 다른 책을 선정하자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채현'은 '한 모둠의 구성원은 모두 같은 책을 읽는 거고, 다른 모둠이 선정한 책은 읽을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 두 사람의 공통된 이해에 '소민'은 '그래.'라고 동의하고 있으므로 ㉑의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민정'은 '재균'이 제기한 의문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

③ '채현'은 '재균'과 '소민'의 의견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④ '재균'은 [A]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이고 있지 않다.

⑤ '채현'은 자신의 최근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42. 매체의 언어적 특성(정답: ㉔)

㉔에서는 형용사 '그렇다'의 활용형을 통해, △△ 변환기 앱을 안 써 본 친구들은 생소할 것 같다는 '준모'의 의견을 대신하여 나타내고 있을 뿐, '준모'가 제시한 모둠 활동 기록 방법을 대신하여 나타내고 있지 않다. 참고로 (가)에 제시된 '△△변환기 앱으로 활동 내용 기록'이라는 모둠 활동 기록 방법이

실제로 '준모'가 제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㉑에서는 명사 '진행'으로 끝나는 형식을 통해, 학급 자율 활동이 모둠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② ㉒에서는 지시 관형사 '이'를 통해, '안 써 본 친구들은 생소할 것 같'다는 앱이 앞 문장에 제시된 △△변환기 앱을 가리키고 있다.

③ ㉓에서는 보조사 '는'을 통해, 제안된 내용이나 댓글 내용 위주로 살펴볼 활동 계획서가 문장의 화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⑤ ㉔에서는 보조 동사 '드리다'의 활용형을 통해, '소민'은 활동 계획서 링크를 받게 되는 책임 선생님을 높여서 표현하고 있다.

43. 계획 반영의 적절성(정답: ㉑)

활동명 '독서하고 토론하고'는 '우리 활동은 책 읽고 다양한 의견을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건데, 활동명에 토론을 넣어도' 되냐는 '준모'의 의견과 '토론 형식을 갖추기보다 소통하면서 생각을 나누려고 이 활동을 기획한 거니까 활동명은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소민'의 제안을 반영하여 '독서하고 대화하고'로 수정된 것이므로, 활동 내용을 고려한 것이지 활동 기간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2025년 4월 23일 활동 시간은 '16일 7교시 자율 활동과 23일 6교시가 서로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한 '소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50분'에서 '100분'으로 수정되었다.

③ △△변환기 앱 사용법은 '화면의 '+' 버튼을 누르면 녹음된다는 걸 몰라서 헤맸'다는 '재균'의 사용 경험과 "종료" 버튼을 누르면 녹음 내용이 자동으로 글로 변환되는 걸 몰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정'의 사용 경험을 반영하여 비교란에 '△△변환기 앱 사용법'이라는 하이퍼링크가 추가되었다.

④ 모둠 구성과 책 선정 간 선후 관계의 결정은 '모둠이 정해지고 책을 선정하는 게 활동을 진행하기에 편할 거 같'다는 '채현'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란에 '▶ 모둠 구성 후 책 선정'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⑤ 책을 단체 대여할지 각자 준비할지에 대한 결정은 '학교 도서관을 확인해 봤는데 같은 책이 많지 않아 단체 대여는 힘들겠'다는 '민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비교란에 '▶ 각자 책 준비하기'라는 내용이 추

가되었다.

[44 ~ 45] (매체) 요리 봉사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

44. 매체의 특성에 대한 이해(정답: ④)

㉔을 활용하여, 작성자와의 온라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지현’은 동아리 신입 부원 모집 포스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을 뿐, 신입 부원 모집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㉔을 활용하여, ‘2025 건강한 삶을 위한 먹거리 이해력 향상 프로그램’ 게시물의 내용 항목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㉔을 활용하여, □□구 보건소 앱 공지 사항의 게시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㉔을 활용하여, ‘2025 건강한 삶을 위한 먹거리 이해력 향상 프로그램’ 게시물을 동아리 구성원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 ⑤ ㉔을 활용하여, ‘화살표로 □□구 보건소가 배우는 곳임을 가리키는 게 어때?’라는 ‘태영’의 의견에 긍정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45.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및 제시 방식(정답: ②)

포스터에서 봉사할 장소들을 구별하여 시각화한 이미지를 제시한 것은, ‘우리가 봉사 활동할 장소가 여러 곳이니, 어떤 곳들인지 각 장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이미지로 알려 줘야 할 것 같’다는 ‘현우’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우리가 교육받는 □□구 보건소는 건물 이미지로 제시하’자는 ‘정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포스터에서는 ‘신입 부원 모집을 강조해야 하니까 왼쪽 상단에, 문장을 곡선 형태로 제시하’자는 ‘재은’의 의견을 바탕으로, 왼쪽 상단에 ‘요리 봉사 동아리 신입 부원을 모집합니다!’라는 문장을 물결 모양으로 제시하였다.
- ③ 포스터에서는 ‘가입 신청 경로를 알려 주자’라는 ‘윤호’의 의견과 ‘신청 마감일도 포함하자.’라는 ‘예령’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입 희망자 3월 15일까지 QR 코드로 신청’이라는 문구와 함께 QR 코드를 제시하였다.
- ④ 포스터에서는 ‘배움과 나눔이 우리 활동의 긍정적 효과니까 이걸 적절하게 배치해서 강조하’자는 ‘민영’의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배움 / 주변과 함께하는 나눔’이라는 문구를 포스터 가운데에 배치하였다.

⑤ 포스터에서는 ‘동아리의 주요 활동 두 가지도 알려 줘야 할 것 같’다는 ‘은서’의 의견과 ‘그건 학생들이 말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면 좋겠’다는 ‘민주’의 의견을 바탕으로, ‘먹거리 이해력 향상 프로그램을 수료해요.’와 ‘월 1회 요리 봉사를 실천해요.’라는 문장을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듯하게 말풍선 안에 배치하였다.